

# 浮石寺 간행의 판본 연구

A Study on the Literature of the Buseok Temple

임기영 (Lim, Kee-Young)\*

## ◁ 목 차 ▷

1. 서론	3.1 서적의 간행 및 유통기록
2. 부석사의 연혁 및 역사	3.2 전존본
2.1 창건	3.3 서지적 특징
2.2 역사	4. 결론
3. 간행 판본의 현황 및 서지적 특징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화엄종의 요람이었던 부석사의 연혁과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진존하는 인본과 관련 기록을 통해 사찰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과 유통 정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부석사에서는 고려시대 3종, 조선시대 5종의 판본이 간행되었다. 부석사는 고려시대 화엄종의 종찰로 『華嚴經』을 간행하는 등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꾸준히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다. 고려시대 거질의 『華嚴經』 간행을 통한 축적된 기술력은 조선 초기 불경 판각으로 이어졌고, 조선 후기 유가서의 간행으로 귀착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근 順興府에서 새겨진 유가서 판목을 보관하는 목관의 守藏處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였다. 사찰에서 판각된 인본과 관련 기록을 통해 볼 때, 부석사는 사찰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지식 생산 및 유통의 요체로 그 역할을 다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要語: 浮石寺, 寺刹版, 義湘, 圓融國師, 華嚴經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impussiant@knu.ac.kr)

접수일: 2014년 9월 13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history and the change of Buseok Temple that has been the main place of Hwaom in Goryo and Chosun Dynasty. Also we tried to investigate the old-books printed in the temple and related record of the temple in the point of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woodblock printing that means its publication activit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we could know the facts as follows ; 8 kinds of books were engraved in the temple, 3 kinds were in Goryo period and 5 kinds were in Chosun period. Buseok temple was one of the leading place in Hwaom of Korean Buddhism, the temple was protected and supported by royal family at that times. Also we could estimate considerable number of books was published in the temple as well. Accumulated technique of woodblock printing in the time of Goryo dynasty was continued to the publishing of Buddhist book in Chosun period, likewise in the category of Confucian books was the same pattern. Besides, the temple has been used to the keeping place of woodblocks which had been engraved in Soonheung governmental office. Eventually the books and related record shows us that Buseok temple has carried out its role in term of knowledg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ithin its local community.

Key words: Buseok temple, Books published in temple, Uwisang, Wonyoong,  
*The Avatamska Sutra*

## 1. 서론

부석사는 신라시대 義湘(625-702)이 唐나라에서 화엄종을 배우고 돌아와 창건한 華嚴十刹의 하나이다. 사찰의 창건은 문무왕 16년(676) 2월 왕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창건 이후 사찰에는 왕실의 꾸준한 후원과 지지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義湘은 부석사를 창건한 이후 한동안 사찰에 머물며 華嚴大教를 널리 펴고, 화엄학 강연에 매진하였다. 부석사를 흔히 ‘화엄 종찰’ 또는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라 일컫는 것도 義湘이 유학을 다녀온 뒤 우리나라에 화엄종을 처음 알리고, 사찰에서 이루어낸 그의 왕성한 활동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신라시대 사찰의 전통과 세력은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상의 제자들로 계승된 화엄종의 고승들이 꾸준히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화엄종의 요람으로 유서 깊은 신라 고찰 부석사에 대하여, 사찰의 변천 과정과 출판 활동을 소급하여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관한 사료를 비롯하여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각종 문헌과 기록류를 분석하여 사찰의 내력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찰 소장 목판과 더불어 전존 판본 및 관련 기록을 토대로 사찰 출판의 현황 및 전존본의 서지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한편, 부석사의 연혁과 역사에 대하여 앞선 문헌이나 연구<sup>1)</sup>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거나 개관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들 문헌에서는 자료를 소원하게 구성하거나 사찰에 남아 전하는 원자료에 대한 누락이 많았다.

그리고 부석사에서 간행된 서적에 대한 연구로 천혜봉<sup>2)</sup>은 『三本 華嚴經』판에 대하여 판각의 저본 및 간행 시기를 추정하여 밝힌 바 있다. 또한 위은숙<sup>3)</sup>은

1) 韓國佛教文化研究院 著, 『浮石寺』(서울: 一志社, 1987). ;

김보현 외저, 『부석사』(서울: 대원사, 1995). ;

尹範模, “부석사의 創建과 가람배치,” 『東國思想』 제9집(1976), 115-129 외 다수.

2) 천혜봉, “浮石寺의 三本華嚴經板,” 『불교미술』 제3호(1977), 37-44.

3) 위은숙, “深源寺 소장 13세기 ‘吉凶逐月橫看 高麗木板’의 農曆,” 『민족문화논총』 제52집(2012), 309-358.

부석사에서 간행된 최초의 농서로 간주되는 「農曆」판에 대하여, 본문의 자세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구명한 바 있다. 그 밖에 박상국<sup>4)</sup>은 부석사에 보관된 華嚴經板을 비롯한 소장 목판 648판의 현황을 조사하여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석사의 변천 과정이나 간행 서적 전반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관련 기록과 인본을 추가하여 부석사에서 간행된 판본의 서지적 특징과 문헌의 성격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 2. 부석사의 연혁 및 역사

### 2.1 창건

우리나라 사찰의 창건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해당 내용이 관찬 사료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창건 및 사찰 관련 기록은 관찬 사료보다 「寺記」나 「事蹟類」 또는 「碑文」이나 승려의 문집 등 2차 자료에 전제되어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석사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창건자와 창건 시점에 대한 기록을 명기하였다. 이처럼 관찬 사료에 기록을 남긴 대목으로 미루어, 사료의 작성 당시 또는 해당 시기 부석사의 비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三國史記』 권제7의 「新羅本紀」에는 의상대사가 조정의 뜻을 받들어, 文武王 16년(676)에 부석사를 창건한 사실<sup>5)</sup>을 명기하였다. 의상의 행적을 살펴보면, 중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문무왕 11년(671)이었다. 그 뒤 5년간 전국의 산천을 두루 편력하고, 문무왕 16년(676) 부석사에 안착하여 가람을 창건한 뒤, 이곳

4)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287-291.

5) 『三國史記』 卷第七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十六年條. “十六年春二月 高僧義湘奉旨創淨石寺.”

을 자신의 수양 공간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가람의 창건 당시 의상의 나이는 48세였다.

『三國遺事』 권4의 『義湘傳教』에도 ‘儀鳳 元年(676)에 義湘이 태백산으로 돌아와 왕실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세우고, 대승교를 포교하니 많은 영감이 나타났다6)’고 전하고 있다.

사찰의 창건 뒤 의상은 실천적 교단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화엄종의 진과 및 문도 양성에 매진하여 表訓, 眞定, 智通 등 많은 제자를 배출시켰다. 부석사에서 의상의 활동은 화엄종의 강의와 다양한 법회 활동 및 一乘十地의 설법 등으로 대변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존호가 浮石尊者로 불리었으며, 의상의 화엄종을 언급할 때 부석종7)이라 일컫는 것도 같은 연유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의상의 중장년기 활동 공간이었던 부석사는 王命으로 창건되었다고 하나, 초창기에는 사찰 규모가 작았을 것이라는 관점8)도 있다. 이는 사찰의 창건 뒤 의상의 두드러진 활동과 더불어 그 기초가 다져진 것은 9세기 경문왕(861-874) 무렵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의상의 부석사 창건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은 『宋高僧傳』의 『釋義湘傳』9)에 나타난 ‘善妙說話’를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의상을 사모하던 善妙가 부석사 창건 시 대반석으로 변하여 의상을 수호하였다는 것이다. 『宋高僧傳』의 이와 같은 기록은 사료적인 가치보다 설화적 성격이 강하며, 사찰의 창건 일화에 자주 회자되기도 한다.

한편, 의상의 창건 이후 이곳 부석사에서 수학하거나 가람에서 주지를 역임하면서 사찰의 입지를 공고히 한 고승으로는 신라시대 惠哲國師(785-861), 無染國師(800-888), 澄曉大師(826-895)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도 圓融國

6)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義湘傳教』, “... 儀鳳元年湘歸太 / 伯山奉朝旨創浮石寺數畝大乘靈感頗著 ...”

7) 윤범모, “부석사의 창건과 가람배치,” 『東國思想』 제9집(1976), 121.

8) 김보현 등저, 『부석사』 (서울: 대원사, 1995), 17.

9) 『宋高僧傳』 권제4 『唐新羅國義湘傳』, “... 名曰善妙巧媚誨之湘之心石不可轉也...福善之地不可興焉時善妙龍恒隨作護潛知此念 ...”

師(964-1053)와 圓應國師(1307-1382)도 부석사의 住持로 지내는 동안 무량수전 등 경내 건물을 신축 또는 重修하였고, 교육과 강학에 매진하여 대가람으로 寺格을 한층 격상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 2.2 역사

문무왕 16년(676) 義湘에 의하여 창건된 부석사의 연혁 및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에서 수차례 다루어졌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관련 기록을 보완하여 사찰의 변천 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신라시대

신라시대 부석사에 관한 사료는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전하는 사찰의 창건에 관한 기사 외에 남아있는 자료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관찬사료에는 孝恭王 2년(898)에 弓裔가 순흥의 부석사에 가서, 벽에 그린 신라왕의 벽화를 보고 훼손한 기록<sup>10)</sup> 정도가 전할 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편적인 기록에서도 사찰의 정황에 대한 일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왕명으로 창건된 부석사에 9세기경 임금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으므로, 이는 당시까지 왕실의 관심이나 비호가 계속되었고, 중앙으로부터의 지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건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사찰에 현존하는 조선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판 기문인 『普德閣重修記』에 따르면, 普德閣 또한 부석사의 창건 당시에 만들어진 건물<sup>11)</sup>이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현존하는 유물 중에 국보 제17호로 지정된 부석사 石燈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9세기 후반 신라 景文王(861-874) 재위 기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된

10) 『三國史記』 권제50 『列傳』 제10 弓裔條. “… 嘗南巡至興州浮石寺見壁畫新羅王像 發劍擊之其刃迹猶在 ….”

11) 조선 중기 刻 주정 『普德閣重修記』. “蓋聞普德閣乃石寺創建時所立而爲專 / 寺彰善懲惡之所也今開 ….”

다. 그리고 경내의 石壇과 석륵, 석탑 등도 대부분 이 시기에 건립<sup>12)</sup>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9세기 말경 부석사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하에 대가람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9세기경에 활동한 사찰 출신 祖師들의 행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부석사에서는 의상의 제자였던 저명한 승려들이 화엄경 강학 및 講經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갔고, 그 시기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8세기 후반 화엄 의상의 제자였던 潤玄, 梵體 등이 부석사에서 화엄경을 강학하였고, 이들의 문하에서 惠哲國師(785-861)를 비롯하여 朗慧和尚(800-888), 智證大師(824-882), 澄曉大師(826-895) 등 여러 고승들이 수학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석사는 신라 하대에 이르러 비로소 화엄종의 중심 도량으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춘 대가람으로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통은 고스란히 10세기 고려 왕조로 이어졌다.

## 2.2.2 고려시대

신라 말기의 융성한 사세를 이어받은 고려시대 부석사는 여러 고승을 배출하면서 화엄종의 요지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 시기 부석사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은 圓融國師(964-1053) 碑文을 들 수 있다. 비문에서는 圓融이 말년에 부석사에 주지를 지내면서, 대장경 일부를 印寫하였다<sup>13)</sup> 밝히고 있다. 원융국사는 부석사에서 印寫한 대장경 중에 일부는 봉안 의식을 거쳐서 安國寺에 진장토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圓融이 印寫한 『大藏經』과 현재 사찰에 전존하는 『三本華嚴經』판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 천혜봉의 앞선 연구<sup>14)</sup>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 뒤 문종 7년(1053) 원융국사는 부석사에서 입적<sup>15)</sup>하였다.

12) 김보현 등저, 『부석사』 (서울: 대원사, 1995), 20.

13) 『圓融國師碑文』, “… 吾必不得久淹世間以前印寫大藏經一部藝藏于安國寺遣門人綱幹者 …”

14) 千惠鳳, “淨石寺의 三本華嚴經板,” 『불교미술』 제3호(1977), 37.

15) 『圓融國師碑文』, “… 香滅法界以腥菩提樹摧吾人何蔭師報年九十僧臘七十八門人有 …”

한편, 12세기 후반 毅宗 24년(1170)에 일어난 무신들의 난으로 부석사 승려들이 많이 희생<sup>16)</sup>되기도 하였다. 당시 반란을 음모하고 있다는 구실로 부석사 승려를 비롯하여 符仁寺와 雙岩寺 승려들도 대거 화를 입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12세기 말 신종 1년(1198)에는 司天監 李寅甫가 신종 1년(1198)에 부석사를 방문하여, 객우에 머물며 불상에 예를 표하기도<sup>17)</sup>하였다.

해를 거듭하여 13세기 神宗 4년(1201) 3월에는 義湘의 진영을 보관한 곳이었던 祖師堂이 새롭게 단청<sup>18)</sup>되었다. 이 단편적인 기록은 조사당의 건립 연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건물의 창건 시점을 적어도 13세기 초 이전으로 당겨놓게 되었다.

또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으나 13세기 초경에는 부석사에서 道場齋가 열렸고, 이규보(1168-1241)는 불상에 올리는 축원문을 직접 지어서<sup>19)</sup> 예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 고종 37년(1250) 7월에는 沖明國師 覺鷹이 『佛說阿彌陀經』을 개관하여 판전에 안장시켰다. 이는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있는 부석사의 가호를 비는 징표로 이루어졌다.<sup>20)</sup>

이 밖에도 14세기 초경에는 고려 후기 문인이자 임금을 측근에서 보필하였던 朴孝修(?-1337)가 부석사를 방문하여 시를 남기기도<sup>21)</sup>하였다.

그 뒤 14세기 중엽 이후 부석사는 왜적의 병화에 큰 화재를 입기도 하였고, 眞覺國師 圓應(1307-1382)이 사찰의 주지로 부임하면서 대대적인 중수 및 중창의 과정을 겪게 된다. 먼저, 무량수전의 건물 뒤편의 두공부에서 발견된 묵서 기록으로, 광해군 4년(1612)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鳳凰山浮石寺改椽記』의

16) 『高麗史』 권제100 『列傳』 제13 『丁彥眞條』. “... 興州浮石符仁等寺及松生縣雙岩 / 寺僧徒謀亂命兵馬使鞠之配島 ...”

17) 『新增東國輿地勝覽』 권제25 『慶尙道』 『榮川郡』의 『佛宇條』. “... 高麗司天監李寅甫... 畢將還暮抵浮石寺客宇蕭然無左右忽有 ...”

18) 1916년 조사당 보수 시 발견된 도리 하단의 묵서. “前開彩 承安六年三月日 後開採 ...”

19) 李奎報 撰 『東國理想國前集』 제38권의 「浮石寺丈六前願文」.

20)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54.

2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제25 『慶尙道』 『榮川郡』의 『佛宇條』. “唐高宗儀鳳元年... 朴孝修 詩鳥啼花落減芳年 ...”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즉, 공민왕 7년(1358)에는 왜구가 침입하여 사찰의 무량수전이 큰 병화<sup>22)</sup>를 입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공민왕 21년(1372)에는 圓應國師가 왕명으로 사찰의 주지로 부임<sup>23)</sup>하였고, 퇴락한 당우와 가람의 보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우왕 2년(1376)에는 원응국사가 사찰을 중수하면서 무량수전의 불상을 개금<sup>24)</sup>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에 표기된 圓融國師(964-1053)는 圓應國師(1307-1385)의 오기인 것으로 여겨진다. 원응국사는 10세기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듬 해 우왕 3년(1377)에도 연이어 조사당을 중수<sup>25)</sup>하기도 하였다. 이후 조사당은 조선시대에도 여러 차례 중수되기도 하였다.

한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무량수전의 基壇이 새롭게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부석사 무량수전 기단의 지대석에는 ‘忠原道 赤花面 石手 金愛先’이라는 문구가 돌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기단의 명문에서 지역명을 ‘忠原道’라 칭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점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사찰의 중수 기록으로 미루어 우왕 2년(1372) 무량수전 중수 때 새겨놓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 단편적인 기록 또한 당시 부석사의 寺勢를 짐작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려 후기 부석사에서 『화엄경』을 출판할 당시에도 충청도 俗離寺의 각수가 동원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충청도의 石匠이 부석사에 동원되어 사찰의 중수 활동에 참여한 정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고려시대 부석사의 역사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22) 광해군 4년(1612) 寫 『鳳凰山浮石寺改椽記』. “… 創建後元順帝十七年至正戊戌敵兵火其堂 / 尊容頭面 / 飛出煙 ….”

23) 한국불교연구원, 『浮石寺』 (서울: 일지사, 1987), 55.

24) 『鳳凰山浮石寺改椽記』. “… 而奏于上泊洪武九年丙辰圓[融]國師改造金而 ….”

25) 성종 21년(1490)에 墨書된 『祖師堂重修記』. “宣光七年丁巳五月初三日立柱 ….”

<표 1> 고려시대 부석사의 연혁

시대	내용	비고
11세기 중엽	사찰에서 대장경을 印寫	『圓融國師碑文』
1053	부석사에서 원응국사가 입적함	『圓融國師碑文』
1170년경	모반을 구실로 부석사 승려들이 대거 화를 입음	『高麗史』
1198	司天監 李寅甫가 부석사 불전에 예를 갖추	『新增東國輿地勝覽』 권제25
1201.03	조사당을 새롭게 단청함	祖師堂 墨書記
1250.07	覺鷹이 『佛說阿彌陀經』을 개관함	『고려시대 기록문화연구』, p.54.
13세기 초	이규보가 부석사에서 道場齋 願文을 지어올림	『東國理想國前集』 권제38
14세기 초	朴孝修가 부석사를 방문하여 시를 지음	『新增東國輿地勝覽』 권제25
1358	무량수전이 왜적의 침입으로 병화를 입음	『鳳凰山浮石寺改椽記』
1372	圓應國師가 부석사 주지로 부임	한국사찰연구원, 부석사, p.55.
1376	무량수전 중수 및 개금	『鳳凰山浮石寺改椽記』
1377.05	조사당 중수	『祖師堂重修記』
[고려후기]	無量壽殿 基壇 重修	基壇의 銘文

### 2.2.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시로 한 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불교가 억압을 받았으며, 화엄종의 종찰이었던 부석사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고려 후기 圓應國師(1307-1382)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정비된 사찰은 크게 위축되지 않은 채, 사찰의 법등은 조선 후기까지 면면히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그 전반에 걸쳐 고려 시대 못지않게, 사찰의 중수 및 정비 활동은 계속되었다.

예컨대, 15세기 말 성종 21년(1490) 4월에는 조사당이 중수<sup>26)</sup>되었다. 또한 몇 년 뒤 성종 24년(1493) 4월에는 조사당의 단청이 새롭게 채색된 기록 또한 남아 있다. 이 해(1493)의 단청 채색 작업에는 화주로 戒云과 一禪이 참여하였고, 畫員은 승려 義戒, 惠淸<sup>27)</sup>이 맡았다. 이러한 조사당은 16세기 후반 선조 6년(1573)

26) 『祖師堂重修記』, “... 弘治三年庚戌四月十七日記.”

27) 『祖師堂墨書記』, “... 後開採弘治六年癸丑四月日 / 書畫員 禪師 義戒 惠淸 化主 戒云 一禪 / .”

2월에도 재차 서까래가 교체<sup>28)</sup>되기도 하였다.

한편, 16세기 중엽 명종 10년(1555) 봄에는 화재로 인하여 안양루가 소실<sup>29)</sup>되었으며, 사찰의 승려 石麟에 의하여 중수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石麟의 중수 작업은 선조 9년(1576) 여름부터 선조 11년(1578) 가을까지 계속되었고, 누각의 최종 색칠은 敬暉에 의하여 마무리<sup>30)</sup>되었다. 이렇게 일단락된 중수 작업을 기리는 현판이 선조 13년(1580) 7월에 목판에 새겨져 안양루에 게시되었던 것<sup>31)</sup>으로 보인다. 초서로 쓰인 현판은 四溟堂 惟政(1544-1610)이 그의 장년기에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부석사에 남아 있다.

17세기에 이르러 광해군 3년(1611)에는 무량수전의 서까래가 꺾여서 2년여에 걸친 교체 공사를 실시<sup>32)</sup>하였다. 이와 동일한 내용인 부석사 무량수전에 남아있는 『鳳凰山浮石寺改椽記』의 목서 기록<sup>33)</sup>에도 전하고 있다.

이 밖에 사찰에 전존하는 기와의 암막새 銘文에 따르면, 인조 2년(1624) 경내 건물의 변화 작업이 실시된 흔적을 발견<sup>34)</sup>할 수 있다. 또한 효종 5년(1654) 3월에도 변화 작업<sup>35)</sup>은 이어졌다.

또 17세기 중엽 현종 4년(1663) 7월에는 十王殿과 범종각 및 香爐殿이 부분적으로 중수되었던 정황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 세 건물의 중수 작업은 화주 永環이 주도하여, 목수 3명, 冶匠 1명, 負木 1명, 도감 1명, 별좌 1명, 幹事 1명 및 일반인 시주 44명과 승려 시주 31명이 참여<sup>36)</sup>하였다.

28) 『祖師堂墨書記』. “… 萬曆元年癸酉 二月日更椽記錄.”

29) 선조 13년(1580) 刻 『浮石寺安養樓重勘記』. “… 在乙卯之春東帝孫一起羌雲閣亦燒雲 …”

30) 선조 13년(1580) 刻 『浮石寺安養樓重勘記』. “… 長老石麟 / 其名者憤然重新之志 / 於丙子夏始役斧者斧 / 之鉅者鉅之鞭其眼斫 / 松骨礎而固其柱瓦而 / 修其漏越戊寅秋禪子 / 敬暉亦塗彩迄 …”

31) 선조 13년(1580) 刻 『浮石寺安養樓重勘記』. “… 今之視昔也四溟狂漢記 / 時庚辰秋七月上澣.”

32) 『無量壽殿墨書記』. “… 倭火後改造而至 / 萬曆三十九年自折衝 / 椽也壬子年始役畢 / 於癸丑年八月也.”

33) 광해 4년(1612) 寫 『鳳凰山浮石寺改椽記』. “… 萬曆三十九年 / 辛亥五月晦日風雨大作析其中椽 / 明年 …”

34) 암막새 銘文. “天啓四年.”

35) 암막새 銘文. “順治十三年乙未三月.”

36) 현종 4년(1663) 刻 『浮石寺重修記』. “… 黑土梧月上浣山淵散人記 / 施主秩 / 權有澤 …”

이 밖에도 17세기 후반 숙종 10년(1684) 7월에는 사찰에서 괘불과 三尊佛이 조성되었다. 당시 조성된 괘불은 安養樓 앞마당의 괘불대가 현재까지 남아 있으므로, 이 장소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높이가 9.2m에 달하는 괘불의 하단에는 畫記가 있어서, 불화의 조성 경위를 알 수 있다. 즉, 그림의 조성에는 승려 67명과 일반인 44명이 시주하였고, 畫僧 3명 등이 참여<sup>37)</sup>하였다.

이 괘불은 영조 21년(1745) 새로운 괘불이 조성되면서, 월악산의 신록사로 옮겨 보관<sup>38)</sup>하게 되었다. 괘불을 신록사로 옮긴 시점과 같은 해(1645) 4월에는 부석사에서 새로운 괘불을 제작하였다. 이 괘불의 제작은 일반인 시주 29명과 승려 16명 및 畫僧 13명 등이 참여<sup>39)</sup>한 대규모 작업이었다.

17세기 초부터 확인되는 사찰의 기와 교체 작업은 18세기 초반에도 4차례나 계속되었다. 숙종 35년(1709)<sup>40)</sup>과 숙종 37년(1711),<sup>41)</sup> 숙종 44년(1718)<sup>42)</sup>과 영조 3년(1727) 3월<sup>43)</sup>에 이루어진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사찰 건물의 번와 작업이 지속되던 시기 경종 3년(1723) 6월에는 安養門이 재차 중수<sup>44)</sup>되기도 하였다. 安養門과 安養樓는 동일한 건물로 사찰의 입구 쪽에서 사찰로 들어갈 때 쓰인 편액은 安養門이고, 安養樓는 경내에서 사찰 밖으로 볼 때 걸린 편액이다. 즉, 한 건물에 앞뒤로 편액이 두 개 걸려있는 셈이다. 이 해(1723) 중수 작업에는 冶匠 2명, 片手 5명, 畫員 3명, 負木 3명과 일반인 시주 39명과 승려 시주 23명 등 사찰의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공사였다.

37) 숙종 10년(1684) 作 『浮石寺掛佛』의 『畫記』. “康熙二十三年甲子七 / [ ]初日浮石寺 / 掛佛一坐及 / 佛像三尊造成 ….”

38) 숙종 10년(1684) 作 『浮石寺掛佛』의 『畫記』. “乾隆十年乙丑四月日 / 重安移安于 / 忠清道清風地月岳山 / 神勒寺 / 後排施主秩 ….”

39) 영조 21년(1745) 作 『浮石寺掛佛』의 『畫記』. “乾隆十年乙丑四月日 / 掛佛幀安于浮石寺 / 施主秩 / 平安道 ….”

40) 암막새 銘文. “康熙四十八年(1709).”

41) 암막새 銘文. “康熙五十年(1711).”

42) 암막새 銘文. “康熙五十七年(1718).”

43) 암막새 銘文. “擁正五年丁未三月(1727).”

44) 경종 3년(1723) 刻 『安養門重修記』. “… 不復贅寺內記 / 歲癸卯六月日山人印奎記 / 施主記 / 施主舍堂海月 ….”

또한 같은 시점인 경종 3년(1723) 6월에는 무량수전의 불상이 개금<sup>45)</sup>되었다. 불상의 개금 작업에는 畫員 11명, 供養主 3명, 負木 3명과 그 밖에 功德主, 時維那, 三寶 등 다양한 직역의 참여자들이 가담하였다.

한편,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영조 22년(1746) 가을에는 화재로 인하여 僧堂, 滿月堂, 西別室, 萬歲樓 및 泛鍾閣이 화재로 인하여 모두 소실<sup>46)</sup>되었다. 소실된 건물 중 일부는 중수 작업이 진행되었던 바, 영조 24년(1748) 10월에는 사찰 내외의 대대적인 인원이 동원되어 종각의 중수 작업이 진행<sup>47)</sup>되었다. 이 작업은 영조 23년(1747) 2월부터 진행되어 1년 넘게 진행되어 일단락되었다. 중수에 참여한 인원은 鐵匠 16명, 副片手 1명, 上片手 4명, 刻手 2명 및 일반 시주 28명, 승려 시주 158명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재 시점과 관련하여 범종각과 더불어 사찰의 제 건물에 불이 났고, 이는 ‘丙寅年(1746)秋九月’이라고 밝힌 『材木大施主』라 새긴 현판<sup>48)</sup>도 부석사에 전하고 있다.

또한 범종각의 중수 작업이 일단락 된 뒤, 그 후속 조치로 영조 26년(1750) 6월에는 尋劍堂의 중수 작업이 연이어 진행되었던 정황<sup>49)</sup>을 알 수 있다. 尋劍堂의 중수 작업에는 刻手 1명, 負木 6명, 持寺 1명, 大化主 1명과 일반인 시주 41명, 승려 시주 16명 등이 함께 가담하였다.

이로부터 얼마 뒤 영조 43년(1767) 5월에는 부석사의 본존불인 무량수전 阿彌陀佛 불상에 대한 개금 작업이 일단락<sup>50)</sup>되었다. 이 개금 작업은 앞서 경종 3년(1723) 6월에 진행된 개금 작업에도 불구하고, 본존불의 금칠이 바래고 떨어져

45) 경종 3년(1723) 刻 『無量壽殿佛像改金記』, “學等其名也 / 擁正元年癸卯六月日鷄龍山客記 / 施主秩 ….”

46) 영조 24년(1748) 刻 『浮石寺鐘閣重修記』, “… 上丙寅秋僧堂滿月堂西別室萬歲樓泛鍾閣 / 俱火沙門三應茅銳意重修時 ….”

47) 영조 24년(1748) 刻 『浮石寺鐘閣重修記』, “… 四方之遊者共省焉 / 時歲之十月下澣醉夢翁記 / 施主 ….”

48) 영조 22년(1746) 刻 『材木大施主』, “… 丙寅秋九月梵鐘閣與諸寮並 / 入灰盡近界山 ….”

49) 영조 26년(1750) 刻 『浮石寺畫甘露會達磨師及梵鐘閣尋劍堂記』, “… 可畏令則之 / 乾隆庚午夏六月上浣張虛子信慧識 / 施主秩 ….”

50) 영조 43년(1767) 刻 『無量壽殿彌陀尊像改金記』, “… 人興感於此哉 / 乾隆三十二年丁亥五月日太白山人碧虛記 / 施主記 / 黃金大施主 ….”

재차 개금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 당시 개금 불사 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던 바, 畵工 14명, 목수 1명, 각수 3명, 공양주 7명과 일반인 시주 49명, 승려 시주 93명 등 17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불사였다.

이 밖에도 영조 49년(1773) 3월에는 경내 건물이 강한 바람과 심한 비로 구멍이 나 하자가 생겨서 개와 작업<sup>51)</sup>이 이루어졌다. 이 개와 작업은 각수 3명, 都片手 1명, 副片手 6명, 공양주 3명, 화주 3명 등 모두 115명이 참여한 불사였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정조 20년(1796) 5월에는 영산전의 阿彌陀佛幀과 彌陀觀音像의 개금 작업도 마무리<sup>52)</sup>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사찰에서 이루어진 잦은 중수 작업과 개금 불사 등에 동원된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 이 시기 부석사는 사찰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는 普德閣이 중수<sup>53)</sup>되기도 하였다. 보덕각의 중수 작업은 대시주 朴春亨과 木手 金貴哲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세기 초 순조 6년(1806) 4월에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경내의 여러 樓閣에 대한 중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일반인 시주 24명과 승려 시주 7명, 緣化 1명, 持殿 3명, 공양주 2명 등 사찰 내외의 인원 98명이 동원된 공사<sup>54)</sup>였다.

이로부터 2년 뒤 순조 8년(1808) 10월 사찰에서는 兩寶殿 벽의 흙을 새로 바르고, 그림을 덧칠하는 중수 작업이 도모되었다. 이 공사에는 승려 대시주 3명, 일반인 시주 5명, 대공덕주 2명, 도감 4명, 畵工 3명 등 모두 31명이 참여<sup>55)</sup>하였다.

51) 영조 49년(1773) 刻 『改瓦記』. “…改之者勸遂爲之記 / 乾隆三十八年癸巳三月日軌善記.”

52) 정조 20년(1796) 刻 『慶尙左道順興太白山浮石寺靈山殿彌陀後佛幀及彌陀觀音改錦記』. “…嘉慶元年亦龍仲夏端午二庵門人密庵最華撫謹誌 / 大施主秩 / 金錫老 …”

53) 조선 중기 刻 『普德閣重修記』. “… / 歲甲申閏月太白山人 鳳贊記 / 大施主 朴春亨 / 木手 金貴哲.”

54) 순조 6년(1806) 刻 『太白山浮石寺無量壽殿及諸閣重修記』. “… / 嘉慶十一年四月日公岳人 警誼謹撰 / 大施主 / 老比丘有禪 …”

55) 순조 8년(1808) 刻 『兩寶殿丹腹重修記』. “… 戊辰十月日申宗爲謹書 / 兩寶殿重修大功德主 一庵 / 警誼 別座 學瞻 / 大施主 有禪比丘 / 大施主 …”

한편, 19세기 중엽 부석사는 문경의 大乘寺와 목각 탕화를 빌미로 몇 차례 분쟁<sup>56)</sup>을 치르게 된다. 즉, 고종 6년(1869)에 원래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던 목각 탕화를 大乘寺에서 봉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부석사의 수차례 이루어진 청원에 대승사에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결국, 고종 13년(1876) 부석사의 祖師堂 수리 비용을 대승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목각 탕화는 그대로 대승사에 보관하여 두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조선시대 부석사의 이력 및 변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선시대 부석사 연혁

시대	내용	비고
1490.04	祖師堂 중수	「祖師堂重修記」
1493.04	조사당 단청 새롭게 채색	「祖師堂墨書記」
1555. 봄	화재로 안양루 소실	「浮石寺安養樓重棚記」
1573.02	조사당 서까래 교체	「祖師堂墨書記」
1576.여름-1578.가을	안양루 중건 작업	「浮石寺安養樓重棚記」
1611.09-1613.08	무량수전 서까래 보수 및 교체	「鳳凰山浮石寺改椽記」
1624	경내 건물 飜瓦	암막새 명문
1654.03	경내 건물 飜瓦	암막새 명문
1663.07	十王殿, 범종각, 香爐殿 중수	「浮石寺重修記」
1684.07	괘불 및 三尊佛 조성	掛佛 畫記
1709	경내 건물 飜瓦	암막새 명문
1711	경내 건물 飜瓦	암막새 명문
1718	경내 건물 飜瓦	암막새 명문
1723.06	안양문 중수	「安養門重修記」
1723.06	무량수전의 불상 개금	「無量壽殿佛像改金記」
1727.03	경내 건물 飜瓦	암막새 명문
1745.04	1684년 조성한 괘불 중수 및 신록사로 이전	掛佛 畫記
1745.04	새로운 괘불 조성	掛佛 畫記
1746.09	僧堂, 滿月堂, 西別室, 萬歲樓, 泛鍾閣 화재로 소실	「浮石寺鐘閣重修記」

56) 고종 6년 寫 「右道諸各寺僧徒等齋浴焚香百拜上書」 및 고종 13년(1876) 寫 「完議」 등 보물 제575호 문서일괄.

시대	내용	비고
1748.10	부석사 종각을 증수함	「浮石寺鐘閣重修記」
1750.06	尋劍堂 증수	「浮石寺畫甘露會達磨師及梵鐘閣尋劍堂記」
1767.05	무량수전 아미타불 본존상 개금	「無量壽殿彌陀尊像改金記」
1773.03	경내 건물 개와 작업	「改瓦記」
1796.05	靈山殿의 阿彌陀後佛幀과 觀音佛 개금	「慶尙左道順興太白山浮石寺靈山殿彌陀後佛幀及彌陀觀音改錦記」
조선 중기	普德閣 증수	「普德閣 重修記」
1806.04	무량수전 및 경내 누각 증수	「太白山浮石寺無量壽殿及諸閣重修記」
1808.10	兩寶殿 벽의 흙을 새로 보수	「兩寶殿丹腹重修記」
1869.02	대승사와 목각탱화 반환 건으로 분쟁	「大乘寺木刻幀文書」
1876.03	대승사와 분쟁 합의	「大乘寺木刻幀文書」

### 2.2.4 근대 이후 부석사

근대 이후 부석사에서는 무량수전과 祖師堂, 安養樓 등 경내 여러 건물이 증수되었고, 범종각과 명부전 등이 신축되기도 하였다. 또한 쌍탑을 비롯하여 일부 건물들이 이전 설치되는 등 사찰의 보수와 정비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예컨대, 일제시대 1916년에는 무량수전과 조사당이 해체 수리되었다. 당시 凝香閣의 수선 공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리고 1919년에는 醉玄菴의 이전 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건물 이전 시 취현암에서는 弘治 6년(1493) 및 萬曆 41년(1613) 등의 몇몇 목서 기록이 발견되었다.

한편,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부석사를 방문하였을 때, 安養樓의 편액을 직접 써주어 이곳에 걸린 것<sup>57)</sup>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도 1971년에는 安養樓와 무량수전의 기와를 교체하였으며, 1984년에는 종각이 신축되었고, 이듬 해(1985)에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공사가 실시되기

57) 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本文)』(대전: 문화재청, 2002), 70.

도 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유물각을 개수하여 유물전시각으로 꾸며졌다. 2년 뒤 1998년에는 천왕문이 보수하였으며, 이듬 해(1999)에는 요사채를 신축하고, 2000년 진입로를 보수하는 등 현재의 부석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3. 간행 판본의 현황 및 서지적 특징

#### 3.1 서적의 간행 및 유통기록

부석사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 및 유통 기록 중 가장 이른 사례는, 문종 7년(1053)에 새겨진 『圓融國師碑文』의 내용을 들 수 있다. 비문에 기록에 따르면, 圓融國師의 지시에 따라 부석사에서 대장경의 일부를 印寫하였다<sup>58)</sup>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목판으로 판단컨대, 사찰에서는 고려 중기 12세기를 기점으로 왕성한 출판 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사찰 출판의 결과물은 현재까지도 부석사에 남아 전한다. 즉, 이 시기 새겨진 목판으로 보물 735호로 지정된 『三本 華嚴經』판이 그 사례이다.

이후로도 사찰의 출판 활동은 조선 전기에도 지속되었던 바, 대흥구가 선명한 임관 전 목판인 『三祖大師信心銘』과 『十玄談要解』 등 수종의 불경판이 사찰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조선시대 부석사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직접적인 간행 기록은 16세기 중엽부터 나타난다. 예컨대, 고려시대부터 보존되어 온 화엄경판을 보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선조 1년(1568)에는 화엄경판의 일부를 補刻하였던 바, 현존하는 목판에 ‘隆慶二年戊辰正月日 慶尙道 榮州地 太白山浮石寺 開板’의

58) 고려 문종 7년(1053) 銘 『圓融國師碑文』. “... 不得久淹世間以前印寫大藏經一部藝藏于安國寺...”

간기가 남아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다른 사찰의 사례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유가 문집을 간행하거나 문집관을 보관하는 수장처 역할을 담당하였던 몇몇 기록을 살필 수 있다. 이를테면, 18세기 초 숙종 36년(1710)에는 申叔舟(1417-1475)의 문집에 그의 8대손 申必淸(1647-1710)이 順興都護府使로 재직할 당시 17권 5책의 『保閑齋集』을 중간<sup>59)</sup>하여 판목을 부석사에 보관한 사실을 기록<sup>60)</sup>해 두기도 하였다. 문집의 판각 작업은 順興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판목은 부석사의 본당에 보관하여 옛 사람들이 名山에 두는 의미를 되새긴 것이라 밝혔다. 비록 申必淸의 기록이 단편적이긴 하나, 浮石寺는 당시 사람들에게 선대의 목판을 수장할 만한 안전한 보관 장소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1년 뒤 숙종 37년(1711)에도 비슷한 정황이 확인된다. 즉, 조선 중기의 문사였던 李夏慶(1499-1572)의 유집인 『東臯遺稿』의 중간 발문<sup>61)</sup>에 따르면, 숙종 37년(1711)에 이준경의 6세손이자 당시 順興府使였던 李夏源(1664-1747)이 함흥에 있던 『東臯遺稿』 판목을 순흥의 白雲洞 浮石寺로 옮겼다. 그 뒤 李熊徵이 새로 수집한 유문을 더하여 재차 목판으로 간행한 사례가 보인다. 판각 장소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기록의 정황상 이 문집은 순흥부에서 판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부석사에 새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판각 기록을 밝힌 사례도 전한다. 이를테면, 19세기 헌종 2년(1836)에 고려 후기의 유학자였던 李達衷(1309-1385)의 문집인 『霽亭先生文集』을 부석사에서 중간<sup>62)</sup>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달충의 후손 李宗梓가 이 해(1836) 3월에 작성한 발문에 따르면, 후손인 李璧秀 등이

59) 진존본의 권차 및 책수에 의함.

60) 숙종 36년(1710) 刊 『保閑齋集』의 跋. “… 補其 / 缺合而計之凡一百七十有二板板成不以歸榮 / 川郡司屬之浮石寺僧藏於金堂使遞掌而…”

61) 숙종 37년(1711) 刊 『東臯先生遺稿』의 「重刊凡例」. “… 三十七年辛卯先生六世孫判書夏源出守 / 順興移板于府之白雲洞浮石寺而今刊缺…”

62) 헌종 2년(1836) 刊 『霽亭先生文集』 권4의 「附錄」 제16장 「跋」. “… 思所以壽諸劖劖無遠近無賢愚皆一 / 辭也於是逐派以排計冠以收總爲若干銅遂以 / 古人藏諸名山之意設刊所於太白之浮石寺首 / 尾數三年而功告訖…”

유집을 모으고 재편하여 부석사에서 중간한 경위를 명기하였다. 문집의 간역 작업은 3년이 소요되었으며, 앞선 예로 보면 판목은 사찰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사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불경이나 문집을 판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존하는 기록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내막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후술하게 될 실물 자료의 고찰을 통해, 기록이 한전하는 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3.2 전존본

### 3.2.1 고려시대

#### 3.2.1.1 [12-13세기 刊] 『三本 華嚴經』板 632판<sup>63)</sup> (50판 결락)

부석사의 경내에는 無量壽殿을 비롯하여, 安養樓, 祖師堂, 應眞殿 등 다양한 건물들이 있다. 특히, 泛鍾閣에 인접한 건물로 寶藏閣에는 고려시대 새긴 목판으로 흔히 『三本華嚴經板』으로 불리는 보물 제735호 지정의 고려 각판이 소장되어 있다. 사찰에서 흔히 장경각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건물 2동을 층지게 합쳐 연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寶藏閣에 소장된 『三本華嚴經板』의 수량에 대하여, 일제시대 사찰 보수 때는 674판<sup>64)</sup>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뒤 조사 시기와 조사자에 따라서 경판의 수량에 대하여 차이가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1977년의 조사<sup>65)</sup>에는 639판으로 발표되었고, 1982년 5월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는 634판으로 집계<sup>66)</sup>되었다. 또한 朴相國의 1987년 조사에는 648판으로 산정<sup>67)</sup>되었으며, 2001년의 조

63) 2008년 문화재청 조사 기준.

64)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下篇』(서울: 慶熙出版社, 1968), 49-50.

65) 千惠鳳(1977), 43.

6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사에서는 다시 634판으로 보고<sup>68)</sup>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사찰문화재 조사 시에는 다시 632판으로 보고<sup>69)</sup>되어서 현재의 소장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60권본 楮本 『大方廣佛華嚴經』 목판 240판 (11판 결락)

이 『楮本 華嚴經』판은 북인도 출신으로 중국 東晉에서 활동한 佛馱跋陀羅(359-429)가 번역한 것으로, 60권의 편차로 『大方廣佛華嚴經』을 새긴 것이다. 불타발타라는 鳩摩羅什(344-413)과 같은 시기 활동한 역경승으로 鳩摩羅什과 더불어 중국의 長安 일대에서 많은 번역 활동을 하였던 승려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華嚴經』을 비롯하여 『達磨多羅禪經』 등 13부 125권에 달하는 다양한 경전을 번역해 내었다.

경판의 형태적인 특징은 계선을 새기지 않은 17행 34자로 촘촘한 글자 배치가 특징적이다. 본문을 새긴 半廓의 크기는 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가로 길이는 15cm 내외로 일정하고, 세로 길이가 21.8cm-22.8cm의 범주 안에 있으며, 23cm를 넘는 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본문에는 계선을 새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로 배열은 일정한 편이다. 반면, 가로 字列은 약간의 드나들이 있어서 불규칙하다.

또한 새긴 글자의 형태는 좁은 판에 34자를 배열한 탓에, 아래위 글자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일부 획이 침입하기도 하였다. 새겨진 글자의 전반적인 字形은 정사각형에서 가로가 조금 더 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부석사 화엄경판은 비슷한 시기에 유통된 다른 『화엄경』의 체제가 주로 14자-17자본인데 반해 그 계통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천혜봉<sup>70)</sup>은 『契丹大藏經』의 유입 시기와 형태적인 특징 등으로 미루어 그 저본을 『거란대장

67) 박상국 편저, 『전국사찰소장목록판집』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287.

68)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 경북의 전통사찰Ⅲ』 (서울: 동연구원, 2001), 315.

69)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Ⅱ』 (대전: 문화재청, 2008), 127.

70) 천혜봉(1977), 43.

경」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밖에 목판의 형태적인 특징 상 판심에 제목의 약자와 장차를 새겨서, 책의 제본 상 호접장을 염두에 두고 새겨낸 것으로 보인다. 현존본 중에는 이 판으로 찍은 호접장본이 다소 조사되기도 하였다.

부석사 소장 『진본 화엄경』판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권제32의 제9장에 ‘隆慶二年戊辰(1568)正月日慶尙道榮州地 太白山淨石寺開板’의 간기를 새긴 판목이 남아 있다. 또한 간기에 이어 시주자명이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書寫者 黃彥卿, 刻手 印天 僅連, 鍊板者 佛明 및 공양주와 化主<sup>71)</sup> 등 판각에 참여한 다양한 직역의 인명들이 나열되었다.

이 밖에도 『진본 화엄경』 권제41 제1장의 판심 하단에는 판심제와 장차 표기인 ‘晉第四十一 —’에 이어 판을 새긴 각수명으로 ‘刻手 良守’라 판각되어 있다. 이 장은 보각판이 아니므로, 판을 새긴 良守는 보각판을 새긴 印天이나 僅連과 달리 12세기경 인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보각판을 제외하더라도 본문의 글자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새김의 방식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판이 보인다. 이는 동일한 저본으로 판각하더라도 새기는 각수의 기술이나 성향에 따라 발생된 차이로 여겨진다. 즉, 판각 작업에는 良守와 『주본 화엄경』을 새긴 戒元 외에도 여러 명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87년 朴相國의 사찰 소장 판목 조사에 따르면, 현존하는 『진본 화엄경』 판은 240판 중 5판이 보판으로 추가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0권본인 周本이 7판이었고, 40권본인 貞元本이 4판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부석사에서는 목판이 보관되어 오는 과정 중에 결락된 판에 대하여 완질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시 보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목을 보충한 시기는 『周本』과 『貞元本』을 합친 보판이 모두 16판에 불과하였으므로, 나머지 판목들도 『진본 화엄경』판에서 밝힌 선조 1년(1568)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시기를 달리하여 보충하였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천혜봉의 앞선 연구에서도 周本과 貞元本의 보각 시점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71) 천혜봉(1977), 38.

육안으로 목판을 실사한다 하더라도, 판각 시기를 가름하여 原板과 補板 여부 및 판각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② 80권본 周本 『大方廣佛華嚴經』 목판 270판 (30판 결락)

이 『周本 華嚴經』판은 唐나라의 實叉難陀(652-710)가 번역한 80권본 화엄경을 새긴 목판이다. 實叉難陀는 같은 시기 활동한 菩提流志(-727) 및 義淨(635-713)과 함께 洛陽에서 『大方廣佛華嚴經』, 『大乘入楞伽經』 등 많은 불경을 번역한 인물이다.

이 경판은 판의 크기를 비롯하여 본문을 새긴 형태와 체제 또한 무게본 17행 34자로 「楮本 화엄경판」과 일치한다.

한편, 周本 화엄경판의 권제10에도 판을 새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새겨 두었다. 즉, 권제10의 제6장 권말 제목 아래에 ‘俗離寺依止大師戒元刻’이라는 문구가 판각되어 있다. 이 장 또한 보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간 시의 刻記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각수 기록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속리사가 충청도 속리산의 사찰이라면, 속리사와의 교류 정황 및 화엄 종찰로 부석사의 사세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두 사찰 간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판각만을 이유로 속리사 소속 승려가 원거리에 위치한 부석사의 화엄경판을 새긴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 후기 무량수전의 중수 시에도 충청도의 石工 金愛先이 부석사에서 사찰 중수를 도모한 기록<sup>72)</sup>이 돌에 새겨져 남아 있다. 이 두 가지 정황을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현시점에서는 「주본 화엄경」 판을 새긴 ‘刻手 依止’는 충청도 속리사 소속 승려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주본 화엄경」의 전존 인본에는 필사된 내용으로 ‘認釋’과 ‘祖熙’ 등의 묵서 인명이 보이지만, 이 승려들은 판에 새겨진 기록이 아니므로, 활동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72) 무량수전 기단의 지대석에 새겨진 ‘忠原道 赤花面 石手 金愛先’의 銘文.

③ 40권본 貞元本 『大方廣佛華嚴經』 목판 122판 (9판 결락)

이 「貞元本 華嚴經」板은 闍賓國 三藏 般若가 번역한 40권 편차의 「화엄경」을 새긴 판이다. 경전을 번역한 三藏 般若(8세기)는 북인도 출신으로 唐나라 때 長安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화엄경」을 비롯한 『般若波羅蜜多心經』 등 다양한 불교 경전을 번역한 밀교 승려로 알려져 있다.

이 판 또한 판목의 크기나 본문의 행자수 및 체제 등 모든 면에서 앞선 두 판본과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판각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으나, 같은 시기에 새겨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상의 「삼종 화엄경」판에 대한 판각 시기에 대하여, 李能和는 고려 초기 圓融國師(964-1053) 시절 부석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sup>73)</sup>하였다. 반면, 錢혜봉<sup>74)</sup>은 이 판들이 거란 장경의 유입시기와 맞물려 부석사에서 판각되었으며, 판각된 시기는 12세기 초에서 13세기 중엽으로 제한하여 비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의 근거로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삼본 화엄경」판의 체제가 宋元本에서 볼 수 없는 판식이라는 점, 둘째, 11세기 중엽 이후 「契丹大藏經」이 유입되었던 시대적 정황, 그리고 셋째, 『東文選』 권112에 전하는 고려 승려 宓庵(1226-1292)의 「丹本大藏慶讚疏」에 나타난 기록<sup>75)</sup>이 그것이다.

요컨대, 이 「삼종 화엄경판」의 가치는 무엇보다 당시까지 전래되거나 남아 있지 않았던, 17행 34자의 小字로 새겨진 새로운 계통의 화엄경판 유통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부언할 사실은 부석사 소장 『三本 華嚴經』보다 앞선 시기에 판각된 것으로 여겨지는 동일 체제의 17행 34자본 『三本 華嚴經』의 유통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판본은 해인사의 毘盧遮那佛 복장 유물로 발견되어, 보물 제1778호로 지정

73) 李能和(1968), 755. “… 本寺有華嚴經板木 字細而無疏鈔 蓋其造成 疑在圓 / 融國師時也.”

74) 錢혜봉(1977), 43-44.

75) 『東文選』 권112의 「丹本大藏慶讚疏」. “… 秩簡部輕 函未盈於二百 紙簿字密 冊不滿於一千 殆非人功所成 ….”

된 「진본 화엄경」 권제16-20의 1책이다. 보물 지정본 외에도 이와 함께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본 화엄경」 권제28의 1책과 「진본 화엄경」 권제11-15의 1책 등이 개인 소장본으로 전한다. 이 판본들은 판형과 행자수 및 글자체 등 모든 면에서 보물 지정본과 일치한다.

해인사 소장 판본은 본문 체제가 부석사 소장판과 동일한 17행 34자이지만, 판형이 세로로 조금 크고 글자의 형태도 부석사판에 비하여 세로 길이가 조금 긴 편이다. 즉, 광곽의 세로 크기가 23.8cm-24.3cm로 일정하여, 부석사판이 22cm 내외인데 비하여, 평균 1cm이상 크다. 또한 본문을 새긴 글자의 판각된 상태도 정교할 뿐만 아니라, 판각 시기면에서도 부석사판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에는 이 「화엄경」과 함께 복장물로 납입된 『般若波羅蜜多心經』이 고려毅宗 21년(1167)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복장물로 함께 발견된 해인사 소장판 「화엄경」은 적어도 12세기 중엽보다 빠르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석사의 「삼본 화엄경」 목판은 11-12세기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과 물력이 대거 동원되어 대장경을 활발히 조성하던 시기에, 개별 사찰에서도 독자적인 출판 활동을 병행하였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이러한 사찰 출판에는 당시 규모 있는 가람으로 해인사 등도 가세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들 사찰 출판의 범주는 국내 찬술과 동시에 판하본을 새롭게 써서 독자적으로 간행하는 출판 활동 뿐 아니라, 중국 판본의 번각 활동 또한 한 축을 차지하였다는 점을 실물 자료로써 보여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 3.2.1.2 [고종 6년(1219) 刊] 『吉凶逐月橫看 農曆』 (1판)

이 목판은 보물 제1647호로 등록된 현진하는 가장 오래된 농업 관련 목판이다. 현재 목판은 경북 성주의 深源寺에 소장되어 있다. 2010년 2월 보물 지정 시 문화재청에 등록된 정식 명칭은 ‘吉凶逐月橫看 高麗木板’이다.

흔히 ‘高麗 農曆板’ 또는 ‘高麗 冊曆板’이라고도 불리지만, 여러 농작물의吉日

을 기록한 점에서 ‘農曆板’으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물 명칭으로 부여된 ‘吉凶逐月橫看’이라는 문구는 목판의 수록 내용이 파종의吉日을 기록하였고, 월별에 따라서 가로 방향으로 일람하도록 편성된 본문의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화재 지정 당시 인위적으로 부기한 것이다. 목판에는 자료의 명칭이나 제목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양면으로 판각된 목판에는 새긴 시점에 대한 기록으로 ‘貞祐七年六月浮石寺 願堂主 重太師 知[ ]’라 밝히고 있다. 즉, 고려 고종 6년(1219)에 부석사의 願堂主人 知[ ]에 의해 찬술되었거나 새겨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부석사의 願堂主가 누구였는지는 현시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양면 판각된 목판의 형태는 가로 50cm, 세로 29.5cm의 직사각형으로 제작되었고, 목판에 새겨진 본문의 내용은 耕田 耘田 吉日, 浸種 下秧 吉日, 種粟 吉日, 種大豆 吉日, 種小豆 吉日, 種大小麥 吉日 등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콩, 보리, 조 등 곡물과 무나 토란, 차, 생강 등 채소류를 파종하기 위한 吉日의 간지를 수록하였다.

무엇보다 농력판에 새겨진 내용은 농업 기술이 아니라, 곡물이나 채소를 파종하기 위한 길흉일에 치중되었던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농력에서 상세한 길흉일을 만든 것은 고려시대의 음양오행 사상과의 깊은 관련성으로 설명<sup>76)</sup>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농력 목판이 부석사에서 새겨진 배경을 약속<sup>77)</sup>하면 첫째, 부석사는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 13세기에 도 신라시대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비중이 큰 사찰이었다는 점, 둘째, 부석사의 寺格에 따라 주지 또한 비중 있는 인물로 일관되었던 사실, 셋째, 당시 부석사는 토지나 노비 등 많은 재화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넷째, 고려시대 승려는 지식인으로 부석사 願堂主였던 ‘重太師 知[ ]’ 또한 농학이나 역학에 정통한 인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76) 위은숙, “심원사 소장 13세기 ‘吉凶逐月橫看 高麗木板’의 農曆,” 『民族文化論叢』 제52집 (2012), 347.

77) 위은숙(2012), 348-350.

3.2.1.3 고종 37년(1250) 刊 『佛說阿彌陀經』 1책

이 책은 고종 37년(1250) 7월 부석사에서 개관<sup>78)</sup>하였다. 책의 간행은 熙宗의 다섯째 왕자인 覺膺이 住持로 있을 때, 阿彌陀佛을 봉안하고 있는 本寺의 가호를 비는 징표로서 관각하여 板殿에 安藏한 것에 해당된다.

『佛說阿彌陀經』은 淨土三部經의 하나로 阿彌陀佛과 서방정토의 장엄을 설하고 그러한 정토에 왕생하는 길은 阿彌陀佛을 稱名念佛함에 있다는 것을 취지로 『無量壽經』과 『觀無量壽經』의 뜻을 요약한 것이다.

한편, 부석사에서 『佛說阿彌陀經』이 간행된 것은 사찰의 창건시부터 이어온 사찰의 성격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부석사는 義湘(625-702)의 화엄 사상이 그대로 구현된 장소로 신라의 화엄 종찰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義湘은 阿彌陀佛을 화엄 사상과 같은 一乘으로 이해하였고, 부석사의 창건에도 극락정토의 현실화, 신라의 정토화라는 이념을 밑바탕에 두었다. 그 결과 부석사 창건 시에서도 본존불을 비로자나불이 아닌 무량수전의 阿彌陀佛<sup>79)</sup>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찰 창건 초기의 義湘의 이념은 부석사의 가람 배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부석사는 화엄 사상을 근간으로 하되, 한편으로는 아미타 신앙과 정토 신앙도 함께 어울어진 복합적 성격을 가진 도량이 되었다. 화엄 사상에 깃든 아미타 신앙 또는 정토 신앙의 모습은 사찰에 남아있는 圓融國師(964-1053) 비문에도 그 기록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 즉, 부석사는 사찰을 창건할 때부터 아미타불만을 봉안하였고, 이는 아미타불을 一乘으로 동일시한 義湘大師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사실임을 밝혀두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석사는 화엄의 종찰로 여겨지지만, 정토 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공간이었고, 고종 37년(1257)에 새겨진 『佛說阿彌陀經』 또한 아미타 신앙이 병존한 공간이었던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여겨진다.

78)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54.

79) 윤범모, “부석사의 창건과 가람배치,” 『東國思想』 제9집(1976), 4.

이처럼 앞서 살펴본 『화엄경판』과 고종 6년(1219) 『농력판』, 그리고 『阿彌陀經』의 판각 사례에서 보듯이, 12-13세기 부석사는 서적의 인쇄를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불경 등 다양한 문헌을 출판해 내었다. 이는 곧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부석사는 이미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장소로 자리매김 하였던 정황과도 맞물려 있다.

### 3.2.2 조선시대

조선시대 부석사는 다른 여느 사찰처럼 건물의 열화 및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수차례 중수와 중창을 거듭하였다. 그러한 와중에도 사찰에서는 서적 출판의 명맥이 이어졌고, 이는 사찰에 남아 전하는 조선 전기 목판 및 조선 후기에 간행된 문집이나 족보 자료를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사찰에 소장되어 전하는 목판 중 조선 전기 목판 3종은 날개로 남아 있고, 부석사 간기 또한 남아 있지 않다. 이 목판은 『三祖大師信心銘』, 『十玄談要解』, 『結手文』이다. 조선시대 목판 중 이 판들을 부석사판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개연성이 높으므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 3.2.2.1 조선 전기 刊 『三祖大師信心銘』 목판 1매 (缺)

이 판의 내용은 중국 선종의 三祖인 僧璨(- 606)이 禪旨의 요체에 대하여 시문형식으로 밝힌 단편적인 글이다. 승찬은 중국 남북조와 隋나라 때 활동하였던 승려이다. 선종의 2대 祖師인 慧可(487-593)와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불법과 의발을 전수받아 3대 조사가 되었다.

『信心銘』은 승찬의 장년기였던 開皇 10년(590) 이후, 그가 山谷寺에 머무르던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심명』의 본문에는 사언절구의 시문 73句가 對句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두 146구로 글자수는 586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짧은 본문의 분량에도 불구하고 『신심명』은 승찬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中道에 입각하여 禪과 敎의 핵심 내용을 응집하여 담고 있다.

불교 사상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저술은, 중국에 법문이 전해진 이후 찬술된 최고의 문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후대 사람들은 짧은 문구로 禪旨를 표현하되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다 하여, 흔히 ‘骨髓 法文’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부석사 소장 목판은 현재 寶藏閣에 보관되어 있고, 앞뒤의 양면에 새겨진 내용은 본문의 제1장-제4장에 해당한다. 판심의 제목은 ‘信’으로 새겨져 있고, 한 면에 두 장을 새긴 판의 크기는 63.5cm×18.5cm에 달한다. 본문에는 계선이 없고, 판심의 아래 위에는 대흑구를 선명하게 판각하였다. 목판의 좌우 마구리는 손상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전반적인 판의 양식은 임란 전 조선 전기에 새겨진 각판임을 알 수 있다.

### 3.2.2.2 조선 전기 刊 『十玄談要解』 목판 1매 (缺)

『十玄談』은 중국 당나라 선종의 한 종파인 曹洞宗 승려 常察(-961)이 수행자의 실천 지침에 대하여 칠언율시 형식으로 지은 10수의 계송이다. 이 『십현담』은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 활동한 法眼宗의 개조였던 文益(885-958)이 주석을 달기도 하였다. 이후 文益의 주석본은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 초기 김시습(1435-1493)에 의하여 재차 주석이 달리고 要解되었다. 이 판본이 우리나라에서 15세기 이후 유통된 『十玄談要解』의 제간본이다. 김시습의 주석 이후로 16세기 중엽의 언해본을 비롯하여 한문본 또한 몇 차례 더 간행되기도 하였다.

金時習이 『十玄談』을 요해한 시점은 그의 나이 41세 때인 성종 6년(1475)이었다. 그는 성종 3년(1472)부터 수락산의 暴泉精舍에 거처하였으며,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十玄談要解』를 찬술한 장소도 같은 곳으로 여겨진다.

김시습은 이 책을 요해하기에 앞서서도 『法華經』 언해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sup>80)</sup>하였다. 김시습은 일찍부터 불교의 교학적 기반을 닦은 인물이었고, 이 책에

80) 정연수, “『十玄談要解』에 드러나 金時習의 경전 및 선어록에 관한 이해,” 『韓國禪學』

서는 자신의 禪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부석사 보각각에 소장된 『十玄談要解』 판은 1판의 낱장으로, 제17-제20장의 본문 4장 분량을 목판의 앞뒤에 두 장씩 새긴 판이다. 판의 크기는 64cm×18.7cm로, 판심의 제목은 ‘談’으로 새겼다. 판심의 상하로 대흑구가 선명하고, 본문의 계선은 판각하지 않았다.

이 목판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앞뒤로 4장 분량을 새긴 점, 본문의 행자수, 외자의 판심제, 대흑구로 된 판심의 양식 등 모든 면에서 『三祖大師信心銘』과 일치한다. 또한 판의 마모 상태와 마구리가 훼손된 점 등 여러 면에서 판각 시기는 조선 전기 새겨진 『三祖大師信心銘』과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 3.2.2.3 조선 전기 刊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목판 2매 (缺)

이 판은 수륙재의 제반 의식 절차를 요약한 책이다.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물이나 물의 고혼과 아귀 등에게 法食을 평등하게 공양하여 구제하는 재를 올릴 때 읽는 경문으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륙에서 고통 받는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공덕 가운데 으뜸이라 하여, 조선 초기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행사로 빈번하게 수륙재가 열렸다.

단권으로 구성된 이 판의 본문에서는 손모양 즉, 結手 또는 手印의 다양한 도상에 따른 眞言과 의식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서, 흔히 「結手文」이라 부른다.

현존하는 「결수문」 판본은 성종 1년(1470) 見性寺版을 위시하여, 40여종 이상의 판본이 조사되었다. 또한 특기할 사실은 전존본이 36종 조사된 수륙재 의식서인 「中禮文」과 함께 빈번하게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례문」과 「결수문」 중 상당 판본이 동일한 시기 같은 사찰에서 간행된 사실을 볼 때, 두 책은 단독으로 간행되기보다 함께 출판되어 사찰의 齋의식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소장 「결수문」은 본문의 제23/24장, 제27/28장을 한 면에 한 장씩 판각한 두 판이 남아 있다. 판심의 제목은 ‘水’로 새겼고, 대흑구가 선명하다. 판의

크기는 55.1cm×26cm이고, 7행 16자의 본문 체제에 주를 쌍행으로 새긴 것으로 미루어, 연산군 2년(1498)에 간행된 무량사판 계통으로 여겨진다.

목판에는 간기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판각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전술한 『十玄談』과 『信心銘』의 판각 시기와 비슷하거나, 이로부터 약간 후대인 조선 중기 각판으로 여겨진다.

### 3.2.2.4 숙종 39년(1713) 刊 『增補重刊青松沈氏族譜』 4권 5책 (完)

增補重刊青松沈氏族譜.卷1-4, 木板本

順興：浮石寺, 肅宗 39(1713)跋

4卷 5冊：四周雙邊 半郭 24.6×19.8cm, 有界, 世別7段, 13行24字 註雙行, 上下  
內向2葉花紋魚尾; 33.3×23.7cm

刊記：順興府開刊浮石寺藏板

序：崇禎紀元後八十五年壬辰(1712)...[沈]檀

跋：歲癸巳(1713)...[沈]得良

版心題：青松沈氏族譜

이 판본은 『青松沈氏族譜』를 청송심씨 제14대손 沈檀(1645-1730)과 제15대손 沈得良(1658-)이 주도하여 증보 후 중간한 4권본 족보이다. 기록상 이 판본은 청송심씨족보의 제5간본에 해당한다. 『청송심씨족보』는 제9대손 沈通源(1499-)이 명종 1년(1545)에 간행한 초간본을 위시하여, 조선시대 모두 8차례 간행된 기록이 확인된다.

판본의 권수에는 제3간본과 제4간본의 舊序를 비롯하여, 제5간본의 출간을 도모한 14대손 沈檀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족보의 편성은 자녀를 출생 순으로 표기하였고, 本孫은 이름만 표시하여 계통을 세웠다.

모두 4권본으로 편성된 판본의 제4권 말미에는 沈得良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5간본을 간행하게 된 경위를 밝혀 두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족보가 간행된 지 세월이 제법 흘러 후손들이 그 뿌리를 제대로 알기 어려우니, 興州 즉 지금의 順興에서 장인을 모아 재차 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판각 공역을 마치게 되니, 그 판은 4권 분량으로 판목의 수는 213매 즉 426장에 달한다<sup>81)</sup>고 밝혀 두기도 하였다.

발문을 작성한 沈得良(1658-)은 죽보가 간행되던 시점인 숙종 39년(1713) 2월에는 당시 順興府使를 맡고 있었고, 이러한 직책으로 말미암아 順興府에서 장인과 물자를 쉽게 조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沈得良은 죽보의 간행을 마치고, 그 해(1713) 3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후임 洪重禹(1661-1726)에게 順興府使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 판은 제4권의 권말 沈得良의 발문에 이어, 간행 기록을 2행에 걸쳐 본문의 가운데에 大字로 판각해 두었다. 그 내용은 ‘順興府開刊 / 浮石寺藏板’이라 되어 있어서, 순흥부사 沈得良이 순흥부에서 판을 새길 당시부터 목판의 보관 장소로 부석사를 내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전존본의 간기를 새긴 면에서 판을 처음 판각할 당시부터 간기의 문구가 새겨진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판이 새겨진 뒤 숙종 39년(1713) 이후 한동안 목판은 부석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은 현재 계명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18세기 초 부석사는 신숙주의 『保閑齋集』이나 李浚慶의 『東臯遺稿』 등의 유가 문집을 보관한 기록이 더 조사되기도 하였다. 또한 후술할 『霽亭先生文集』의 사례처럼 부석사의 출판 여건은 유가 문집의 간행에 그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3.2.2.5 현종 2년(1836) 刊 『霽亭先生文集』 4권 1책 (完)

霽亭先生文集 / 李達衷(朝鮮) 著 ; 李宗梓(朝鮮) 等 編, 木板本  
 [順興] : [浮石寺], 憲宗2(1836)  
 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1.7×16.0cm, 有界, 10行20字 小字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22.5×21.3cm  
 序 : 上之 三十二年壬辰(1832)黃花節眞城後人李仁行謹書  
 舊跋 : 尹淮, 潘南朴時源跋, 丙申(1836)三月日遠代孫宗梓謹識  
 跋 : 歲丙申(1836)踏清日後孫璧秀謹識

81) 숙종 39년(1713) 刊 『增補重刊青松沈氏族譜』 제4권 말미 沈得良의 「跋文」, “... 鳩村募工 / 關歲而告訖板凡二百三葉凡四百二十六釐 / 而爲四卷喚惟吾吾宗百季 ...”

이 판본은 고려 말기에 활동한 문신 李達夷(1309-1385)의 시문을 엮은 책이다. 『東文選』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霽亭先生文集』은 일찍이 15세기 세종조에 尹淮(1380-1436)가 서문을 써서 春川府에서 간행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이 판본이 초간본으로 여겨지지만, 실물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세종조에 간행된 초간본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부석사판 『霽亭先生文集』은 초간본에 권두의 서문과 일부 시문을 더하고, 권제4의 부록 정도를 더하여 19세기 헌종조에 간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집의 편성은 4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은 詩, 권2~3은 文, 권4는 附錄이다. 그리고 문집의 간행은 헌종 2년(1836)에 이루어졌으나, 준비 작업은 몇 해 전부터 시작되었던 정황이 드러난다. 이는 권두에 수록된 이달충의 후손 李仁行(1758-1833)의 서문과 권말 李宗梓의 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인행의 서문에 따르면, 이달충의 문집은 갖은 병화와 간행된 지 오랜 시일이 흘러 산일되어 전하는 바가 드물다 하였다. 이에 원본을 보존하기 어려워, 후손 李德培가 『東文選』과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책에서 문장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덕배는 직접 손으로 판하본을 써서 李宗梓의 도움으로 문집을 간행하게 된 사실<sup>82)</sup>을 밝혀 두었다.

李仁行의 서문 작성 시기는 순조 32년(1832) 9월이었다. 하지만 문집의 발문은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헌종 2년(1836) 3월에 쓰여졌다. 발문 내용에 따르면 판각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 비로소 간행의 공역이 마무리 된 사실<sup>83)</sup>을 밝혀두어, 두 기록의 시간차가 어긋남 없이 설명된다.

한편, 李宗梓는 발문에서 ‘古人藏諸名山之意設刊所於太白之浮石寺’라 명기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문집의 판각 작업은 부석사에 刊所가 설치된 뒤 진행되었고, 간역 작업이 마무리 된 뒤 판목의 보관도 부석사에서 이루어졌음

82) 헌종 2년(1836) 刊 『霽亭先生文集』의 『序文』. “… 而 / 公之全集嘗鋟板于春川府 / 百年兵燹之餘子孫分散京鄉 / 無有能保守元本者後孫承 / 宣公德培蒐輯於東文選輿 / 地諸書手寫一帙 ….”

83) 헌종 2년(1836) 刊 『霽亭先生文集』의 『跋文』. “… 總爲若干銅遂以 / 古人藏諸名山之意設刊所於太白之浮石寺首 / 尾數三年而功告訖 ….”

을 알 수 있다.

### 3.3 서지적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부석사 간행 서적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부석사 간기를 명기하고 있는 고려 불서 판본, 둘째 조선 전기 불서로 사찰에 소장된 판목,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부석사에서 간행된 문집과 족보가 그 범주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부석사 간행 서적의 서지적 특징을 간략히 짚어보았다.

#### 3.3.1 시기별 특징

부석사에서 간행된 8종의 서적 중 시기별로는 고려시대 판본이 3종, 조선시대 판본이 5종으로 조사되었다. 사찰의 출판 기록과 생산된 출판물을 통해 소급하여 살펴보면, 부석사의 출판 활동은 일찍이 10세기경 시작되어 12세기경에는 정점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석사의 최초 출판 활동은 일찍이 10세기 圓融國師가 사찰의 주지를 지내던 시기로 소급된다. 당시 원용국사가 부석사에서 『대장경』을 찍어서 이를 安國寺로 옮긴 기록이 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찍부터 시작된 고려시대 부석사의 출판 활동은 『삼본 화엄경』판을 새길 당시, 그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부석사 『三本 華嚴經』판의 수량이 거질일 뿐 아니라, 판각 기법에서도 細字의 본문을 『대장경』 못지않게 뛰어난 기법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데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경판의 판각 시에는 충청도 사찰의 각속까지 동원된 사실로 미루어 사찰의 사세 또한 융성한 시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제 사찰에서 이루어진 불서 간행이라는 관점에서든, 부석사는 일찍이 海印寺나 松廣寺 등 국내 유수의 가람과 더불어 사찰 출판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일찍부터 다져진 사찰 출판의 기반으로 말미암아, 12세기를 기점으로 사찰에서는 필요시 수시로 책을 찍어 서적의 요구에 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3세기 초에 인쇄된 농사관련 판본과 13세기 중엽 『佛說阿彌陀經』의 간행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편, 조선시대에도 사찰의 출판 활동은 위축되지 않았고, 이는 곧 조선 초기 禪宗類 서적과 불교 의식서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또한 불서 출판의 축적된 기술력은 조선 후기 족보와 문집의 간행에 그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18세기를 기점으로 한 사찰의 유가 문집 간행은, 이 시기 여러 사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부석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여, 18세기 초 『霽亭先生文集』를 사찰에서 간행하였고, 순흥부에서 새겨진 『保閑齋集』, 『東臯遺稿』, 『靑松沈氏族譜』를 사찰에 보관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찰에 보관된 『保閑齋集』 등 3종의 문집판은 초쇄본의 경우 순흥부에서 인출하였겠으나, 이후 후쇄본들은 부석사에서 찍혀졌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사례로 추측컨대, 조선 후기 부석사는 고려시대 못지않게 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식의 생산 및 정보 유통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3.3.2 주제별 특징

부석사에서 간행된 8종의 서적 중 주제별 대구분은 佛書類 6종, 儒書類 2종이다. 사찰에서 간행된 서적이 8종에 불과하여, 주제별로 세분하여 간행 서적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존하는 불서 판본 6종의 주제는 고려시대 華嚴經類와 조선 전기 禪宗類 및 사찰의 의식서로 대변되는 禮懺類 서적들로 일관되었다. 고려시대 판각 활동은 義湘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華嚴經』과 『阿彌陀經』이 사찰에서 판각되었다. 이는 義湘을 개조로 하는 화엄종의 종찰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더불어 조선 초기 선종류 서적과 의식서가 간행된 것은 재의식의 필요성이나 승려들의 학습 및 강독 등 사찰의

실제적인 수요에 따른 개관 활동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조선 후기 부석사에서 이루어진 문집과 족보 등 유가서의 간행 사례는 사찰의 전통이나 성격과는 무관한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조선 후기 불교계의 위기 의식과 그에 따른 활로 모색, 승려들의 현실 참여와 경제 활동, 실학 사상에 바탕을 둔 유불의 융합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이를테면, 사찰의 유가서 간행에는 무엇보다 유불 사상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였던 불교계의 현실과 더불어 출판의 기술력과 물력이 갖추어져 있던 사찰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관점에서 조선 후기 불교계의 시각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한 가지는 현실을 완전히 저버리고 은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호시탐탐 세속의 참여를 모색하였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자들이나 관청을 비롯한 현실 정치가들과 사찰의 결탁은 선후를 가릴 것 없이 예견된 수순이었다. 즉, 부석사에서 이루어진 유가서의 간행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관점이 될 것이다.

### 3.3.3 형태 및 판종별 특징

부석사에 간행된 판본의 형태면에서는 고려시대 『華嚴經』판은 거란본을 번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판각 방식은 권자본이 아닌 호접장 형태를 취하였다.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출판이 성행하였던 12-13세기는 권자본 형태의 판각 방식이 주로 성행하였으나, 일부 사찰에서는 호접장 형태를 비롯하여, 陀羅尼와 眞言을 포함한 낱장의 판각 방식도 병행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중국본이 많이 유입되었고, 이 판본을 번각함에 따라 권자본 뿐 아니라 선장본 형태의 판각 방식도 공존하였던 시기였다.

13세기 초 부석사에서 새겨진 『農曆』판은 낱장 판각의 좋은 예이다. 이는 전존하는 목판의 형태가 낱장의 인쇄물들과 동일하게 새겨져, 제본을 염두에 둔 판각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조선시대 판본은 모두 선장본으로

새겨졌다.

한편, 간행의 수단 면에서는 활자 인쇄에 의존하지 않고, 전존본 8종 모두 목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틀어 사찰의 출판 수단은 목판이 주가 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승려의 문집이나 족보 간행 시 목활자를 사용한 사례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 4. 결 론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부석사의 창건과 역사적 변천 사실을 사료 및 사찰 소장 기록류를 통하여 소급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전존하는 인본과 관련 기록을 통해 사찰에서 이루어진 서적의 간행과 유통 정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중점을 두어 살펴보려고 한 것은,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의 현황과 전존 자료의 성격이었다. 이에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전존본 등 실물 자료와 사찰 소장 판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석사에서는 고려시대 3종, 조선시대 5종의 판본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신라 文武王 16년(676) 왕명으로 義湘에 의해 창건된 부석사는, 신라 말 9세기 景文王 무렵에는 대가람으로써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찰의 상당수 건물들이 이 시기에 지어졌거나 정비된 정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고려시대 부석사에서는 10세기 말부터 『대장경』을 인출하는 등 사찰 출판의 기록이 처음 나타난다. 이후 13세기 조사당이 중수되었으며, 14세기 중엽에는 왜적의 침입으로 사찰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4세기 말 圓應國師가 부석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무량수전과 조사당이 중창되는 등 사찰은 일대 중흥기를 맞이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부석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고, 기존 건물의

중수 사례도 20차례 이상 조사되는 등 사찰의 전통과 명맥은 근대 이후까지도 꾸준히 계승되었다.

넷째, 사찰에서 간행된 서적은 佛書類가 6종, 儒家書가 2종으로 조사되었다. 10세기 말경 사찰 출판의 정황이 처음 나타난 뒤, 고려시대 화엄종의 중심 도량으로 『三本 華嚴經』판이 새겨진 12세기경에는 사찰의 세력이나 출판 능력이 정점에 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은 거질의 화엄경판이 새겨진 점, 경판의 판각 기법이 뛰어나고 정교한 점, 목판을 새기는 작업에 타 지역 사찰 각수가 동원되었던 점에서 비롯되었다.

다섯째, 『삼본 화엄경』의 출판 이후 부석사에서는 13세기 『農曆』과 『佛說阿彌陀經』을 연이어 판각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선종류 서적과 불교 의식서를 판각하는 등 필요시 수시로 서책을 인출해 내었다. 또한 이러한 사찰 출판의 전통은 조선 후기 유가서의 간행으로까지 그 명맥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찰의 역사 및 출판 이력으로 짐작컨대, 부석사는 비록 현존하는 판본이 많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신라 말 사찰의 기반이 다져진 뒤, 고려시대 이후에는 화엄종의 요람으로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왕성한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당시 축적된 출판의 기술력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불경 판각으로 이어졌고, 조선 후기 유가서의 간행으로 귀착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18세기 이후에는 順興府에서 새겨진 유가서 판목을 보관하는 목관의 수장처로써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부석사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틀어 사찰이 위치한 영남 지역의 지식 생산 및 유통의 요처로 그 역할을 다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原典 ]

- 『順興誌』(1899. 필사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竹溪志』(1884.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  
『慶尙道邑誌』(1832. 필사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武陵雜稿』(1859.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霽亭先生文集』(1919.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 [ 단행본 ]

- 慶尙道七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慶尙道七百年史』. 대구: 同會, 1999.  
慶尙北道史 編纂委員會 編. 『慶尙北道史 上·中·下』. 대구: 同會, 1983.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김보현 외저. 『부석사』. 서울: 대원사, 1995.  
김용선 편저. 『고려묘지명집성』.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김용선 지음. 『고려금석문연구: 돌에 새겨진 사회사』. 서울: 일조각, 2004.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국립문화재연구소 編. 『불교민속문헌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문화재청 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전: 문화재청, 2007.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사찰문화연구원 편. 『대구·경북의 전통사찰 III』. 서울: 사찰문화연구원, 2001.  
釋尾春菴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沈暎俊 著. 『日本訪書志』.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安啓賢 著. 『韓國佛教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3.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李箕永 著. 『韓國佛教研究』.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3.
- 李能和 編. 『(역주)韓國佛教通史』.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李智冠 著.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伽山文庫, 1993.
- 李智冠 編.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6.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前間恭作. 『古籍冊譜』 第一冊-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1944.
-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朝鮮總督府 編. 『朝鮮寺刹史料』. 東京: 國書刊行會, 1971.
-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영인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6.
- 蔡尙植 著.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3.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한상길 지음.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許興植 著.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6.
-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 黃壽永 編著. 『한국금석유문』. 서울: 一志社, 1994.
- 黒田亮 著.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1940.

### [ 논문 ]

- 김동현. “浮石寺 無量壽殿과 祖師堂.” 『불교미술』 제3호(1977). 28-33.
- 金相溟.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 南權熙. “東興備攷의 사찰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97-142.
- 南權熙.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教 書籍에 관한 研究.” 『韓國書誌學論集』

- (1999). 351-456.
- 南權熙.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판본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38권 6호(2001). 82-100.
- 도변창. “太白山 浮石寺 所藏 三種華嚴經 高麗板의 가치.” 『朝鮮佛教叢報』 제4호(1917). 31-34.
- 배현숙. “大慧普覺禪師書 異本考.” 『書誌學研究』 제5·6집 합집(1990). 161-181.
- 배현숙. “蔚州 雲興寺의 불경간행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37-83.
- 배현숙. “朝鮮時代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圖書館學報』 제4집(1983). 145-160.
- 석길암. “義湘의 행로와 사상적 변화에 대한 고찰.” 『불교학보』 제59집(2011). 85-107.
- 유탉일. “嶺南地方刊行 有刊記 佛書 目錄.” 『鄉土文化』 3집(1970). 267-302.
- 李龜烈. “광복 직후의 문화재 사건들.” 『文化史學』 제27호(2007). 1089-1114.
- 위은숙. “深源寺 소장 13세기 ‘吉凶逐月橫看 高麗木板’의 農曆.” 『민족문화논총』 제52집(2012). 309-358.
- 尹範模. “부석사의 創建과 가람배치.” 『東國思想』 제9집(1976). 115-129.
- 이동오 선사. “浮石寺圓融國師碑.” 『朝鮮佛教叢報』 제6호(1917). 54-57.
- 이영숙. “부석사 掛佛의 고찰.” 『文化史學』 제34호(2010). 147-177.
- 정석기. “신라시대 부석사의 사회·종교적 기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4.
- 鄭王根. “조선시대 『妙法蓮華經』의 판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 천혜봉. “浮石寺의 三本華嚴經板.” 『불교미술』 제3호(1977). 37-44.
- 탁효정.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허홍식. “한국 불교서의 간행현황과 방향.” 『書誌學報』 제8호(1992). 61-73.

[ 참고 웹사이트 ]

『三國史記』. <<http://www.koreaa2z.com/>>.

- 『三國遺事』. <<http://www.koreaa2z.com/>>.
- 『高麗史』. <<http://www.koreaa2z.com/>>.
- 『朝鮮王朝實錄』. <<http://www.koreaa2z.com/>>.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 『日省錄』.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ILS)>.
- 『內閣日曆』.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ID=NGK)>.
- 『增補文獻備考』. <<http://www.krpia.co.kr/pcontent/>>.
- 『新增東國輿地勝覽』.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http://www.kostma.net/>>.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http://buddha.dongguk.edu/>>.

